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제1순환道 위로 달린다

### 교각 세워 선로 가설

도심을 아우르는 확대순환선으로 건설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궤도가 광주 제1순환도로를 죽으로 가설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의 선로는 폭 35m 이상(6~7차선 이상) 도로가 필요하며, 최적 부지로는 제1순환도로(총연장 14.266km)가 편하다. 확대순환선은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조선대~광주역~전남대~첨단~수완지구~시청 구간으로, 총 연장 42.5km이다.

시가 제1순환도로를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가설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정해놓은 지상고가(地上高架)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상(도로)에 교각을 세우고 궤도를 그 위

에 얹어 열차가 지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제1순환도로(동운고가~서방4거리~산수5거리~남광주4거리~백운광장~농성광장~동운고가)는 도로폭이 35m~40m에 달해 1차로 가량을 빼내 교각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도심도로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추가 부담도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시마관을 고려해 경전철 교각 지름을 1.8m 이하로 해 교각이 도로면을 차지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남 김해시와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교각 지름이 2.2m 이상이어서 미관에 좋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최신공법을 도입해 교각 지름을 1.8m 이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ju.co.kr

### 광주시 부이사관 서열 파괴 파격 인사

광주시가 3일 부이사관(3급)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연공서열을 파괴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이사관 대상 서기관 7명을 삼의에 이홍의 감사관과 정선수 투자유치기획단장 등 2명을 승진시켰다. 노희용 사회복지과장(4급)은 준국장급으로 승진됐다.

이날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이홍의(서기관 승진 2004년 1월7일) 감사관과 정선수

수(2004년 6월7일) 투자유치기획단장은 승진 대상 후보자 7명 중 서기관 승진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시 안팎에서는 파격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선수 단장은 부이사관 승진 조건인 서기관 근무기간(5년 이상)을 갖 넘겼다.

이날 승진후보자 7명의 서기관 승진 연도는 2000년과 2001년 각 1명, 2002년 2명, 2004년 3명이었다.

/윤영기자 penfoot@kwanju.co.kr

### 세계발효식품·세계음식문화·양념 향신료관

### 광주김치축제 다양한 전시관 선봬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광주월드컵경기장 등 광주 전역에서는 열리는 광주김치축제에 세계웰빙 발효식품관과 세계음식문화관, 양념 향신료관 등 다양한 음식을 소재로 한 전시관이 선보인다.

‘2009 광주김치문화축제 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미국 식품 전문잡지가 세계 5대 경강식품으로 선정한 한국의 김치를 포함해 인도 탤跔, 그리스 요구르트, 일본 낫또, 스페인 올리브유를 전시할 공간으로 세계웰빙발효식품관과 자매 도시 또는 우호협력 도시인 미국, 인도, 대만, 이탈리아, 독일, 중국 도시들의 전통음식을 소개할 세계음식문

화관과 양념 향신료관 등을 선보이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김치경연대회 일정을 늘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는 한편 해외 유명식당 대표와 바이어들과 함께 하는 ‘광주김치 마케팅 비즈 투어’, ‘광주5미 식객 투어’ 등의 5개 분야 45개 프로그램도 확정했다.

한편 시는 김정은과 진구 주연의 영화 ‘식객2-김치전쟁’의 제작 지원과 ‘김치이야기’ 뉴스레터 발간, 광주 김치문화축제 홈페이지(www.kimchi.gwangju.kr) 오픈 등을 통해 광주김치를 홍보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ju.co.kr



### 스페인 소몰이 축제

13일(현지 시간) 스페인 동북부 펠플로나에서 열린 산페로민 축제의 소몰이 행사에서 시민들이 성난 황소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이 축제에서는 지난 10월 14년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까지 11명이 부상하고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 日 도쿄의회 선거 여당 참패

### 과반 확보 실패…민주당 사상 첫 원내 1당

일본의 차기 정권을 정하는 종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불렸던 12일 도쿄(東京)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상 최초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또 여권은 과반수

있다.

13일 새벽 NHK의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총 127개 의석 가운데 54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을 확보했다. 반면 여당인 자민당은 38석,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23석을 얻어 여권의 총 의석수는 과반수에 3석 모자라는 61석에 그쳤다. 이밖에도 공산당은 8석, 기타 정당과 무소속이 4석을 얻었다.

12일 오후 8시 마감된 선거의 투표율

은 54.49%로 2005년 선거 당시 43.99% 보다 10.5% 포인트 높았다. 당시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48석, 민주당이 34석, 공명당이 22석, 공산당이 13석 등을 확보했었다.

민주당은 나고야(名古屋), 사이타마(埼玉), 지바(千葉) 시장 선거, 시즈오카(靜岡) 현 지사 선거 등 주요 지방선거에서 4연승 한데 이어 수도권 의회에서도 대승을 거둠에 따라 차기 종의원 선거에서의 정권 교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 中 위구르 사태

### 부상자 1,680명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5일 발생한 대규모 유혈사태로 인한 부상자가 1천680명으로 증가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5일 유혈사태로 인한 부상자가 1천680명이며 이 중 93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신장자치구 정부가 밝힌 것으로 13일 보도했다.

939명 중 중상자는 216명이며 74명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앞서 리춘양(李春陽) 신장자치구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사망자가 10일 오후 11시 현재 184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사망자 수자는 앞으로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 “김정일 외모만으로 췌장암 단정 못해”

### 국내 전문가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분야 전문의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췌장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세훈 성균관대학 삼성서울병원 혈액 종양내과 교수는 “외모만 봐서는 췌장암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전제한 뒤 “다면, 췌장암 암암치료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머리속이 들판처럼 빠지는) 심하지 않은 탈모와 피부변색, 오심, 구토, 식욕감퇴, 체중감소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모상 탈모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다고 해서 김 위원장을 췌장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관련 전문의

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증상은 췌장암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부작용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 공개된 김 국방위원장의 사진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15주기 중앙 추모대회에 참석했을 때다.

당시 카메라에 비친 김 국방위원장은 고개를 숙여 묵념하거나, 앉아서 자료를 읽을 때 찍힌 영상에는 머리 위부분의 머리숱이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었으며, 행사장에 앉아 있을 때는 수직한 얼굴에 다문 입 오른쪽 꼬리가 올라간 모양으로 비쳤다.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는 뇌졸중 또는 당뇨 합병증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한국과 중국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해 뇌졸중 판명 때와 비슷한 시기에 췌장암에 걸렸으며 이 질병이 김 위원장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Canon 호남총판 OPEN 기념 특가판매

### 이제 전문매장에서 캐논 정품을 판매하세요!

### Full HD EOS 500D DSLR

사진으로 소유할 것인가?  
영상으로 소유할 것인가?

### Full HD 고화질 동영상 촬영

- ▶ 1510만 화소 CMOS센서
- ▶ DIGIC4 미지 프로세서
- ▶ ISO 3200 고감도 촬영 지원(확장시 12800 지원)
- ▶ 3인치 92만도트 대형 클리어뷰 LCD(3중 구조 반사방지 기능)
- ▶ 편리한 촬영을 위한 라이브뷰 기능(얼굴 자동 인식)
- ▶ 크리에이티브 전자동 촬영 모드 및 측정 지원
- ▶ 렌즈 주변 조도 보정 기능
- ▶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구입문의 062)350-8397  
(주)HD코리아 광주시 시구 금호월드 1층 정문입구

### 무등빌딩임대



임대문의 062)222-0527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교육시설! 최고의 합격시스템!

### 일반직 공무원 특채 [기능직→일반직] '09년 10월 24일(토) 필기시험 대비 예정

### 주말 특별 단독반 7월 4일(토) 개강

### 이론반 2개월(7/4~8/30) 진도 완벽 완성

사회[김영채 교수] 매주 토요일 13:00~21:00 (8시간, 8주)

행정학[임혁 교수] 매주 일요일 10:00~18:00 (8시간, 8주)

할 수 있다는 믿음! 동부고시학원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www.dongbugosi.co.kr

1위 동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바로뒤  
233-0509

### ■ 현장과 시각 ■

### 디도스 대란, 손놓은 지자체

‘정과대’가 공격 당했다. ‘국방부’도 뚫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은 물론 ‘외교통상부’도 미지의 적에게 여지없이 무너졌다. 공격당했지만 실체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7·7 DDoS 대란’ 이야기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IT강국이 자부하는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악성코드 디도스의 공격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미국의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가 침범했다는 자체 보고를 받고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IT강국의 체면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디도스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줄비PC’가 지난 10일 PC에 저장된 모든 파일정보를 자동 삭제하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광주·전남에서는 100여건의 악성코드 감염 사례 혹은 감염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전남도는 1천200대의 컴퓨터 중 10대의 감염 의심 PC를 확인해 긴급 복구했으며 14시간 가량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 광주시도 정보보호팀을 가동, 중앙 서버의 트래픽(접속량)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했으며 지역기업체들도 보안을 강화했다.

이 때문인지 지자체와 기업들이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PC(Personal Computer) 사용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 비해 보안이 취약해 무방비로 악성코드에 노출되면서 프로그램이 파손, 수십만원의 하드교체 비용은 물론, 소중한 자료들을 땅땅 잃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PC 사용자를 입장에서는 불편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어떤 대응책도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자체 청사에 컴퓨터 키기기만 급급해 정작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하다못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신문 등 언론에게만 맡긴 재 수수방관한 셈이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큰 혼란이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차치시대에 지방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디도스 공격으로 시작된 사이버 위기는 12일 사실상 종결되고 피해를 입었던 사이버들도 정상화됐다. 정부가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감을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철저한 반성과 대비책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안이 대응으로는 다른 다른 사이버 테러를 감당해 낼 수 없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해커 공격시 주민들을 위한 긴급대응 AS처리반이나 더 나아가 화이트 해커 발굴, 정보보안센터의 운영도 모색해야 한다. 사이버 시대, 내 주민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디도스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kps@kwanju.co.kr